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3년 9월조사 -

2013년 10월 3일
주식회사 테이코쿠데이타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경기DI는 46.1, 전후 가장 긴 확대기였던 2006년 당시까지 상승

~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이 과거최고치를 갱신, 아베노믹스 효과가 중소기업기업에도 파급 ~

(조사대상 2만 2,733사, 유효회답 1만 826사, 회답률 47.6%, 조사개시 2002년 5월)

< 2013년 9월의 동향 : 상승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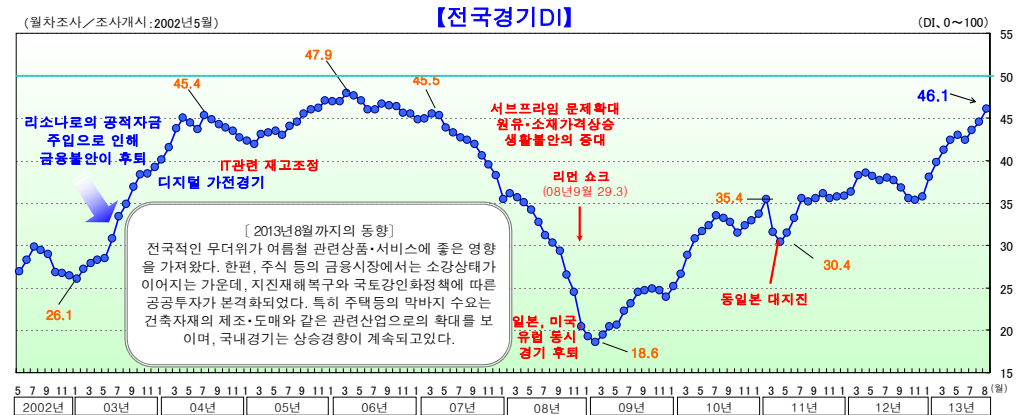
2013년 9월의 경기동향지수(경기 DI: 0~100, 50이 판단분기점)는 전월대비 1.5포인트 증가한 46.1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이자나기 경기(일본경제의 호황기)를 뛰어넘는 전후 가장 긴 확대기였던 2006년 10월(46.3)이래, 6년 11개월만의 수준.

9월은 지진재해 복구와 국토강인화에 따른 내수공사가 진행되었고, 2020년 도교올림픽 개최결정이란 뉴스가 기업마인드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맨션 등 주택에의 막바지수요는 관련분야의 개선으로 이어져, 『건설』 『제조』 『운수·창고』 등을 중심으로 전체 10업계(51업종 중 43업종)가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3개월 연속으로 전체 10지역이 개선, 『호카이도』 『토호쿠』 『큐슈』의 3지역이 과거최고치가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도시권과 지방권에 격차를 보이며 경기확대가 대도시권의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었던 2006년 당시와 비교해, 이번에는 지역·기업규모·업계에 폭넓게 경기확대의 효과가 미치고 있다.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이 함께 과거최고치가 되는 등 아베노믹스 효과가 중소기업기업에도 파급되어, 국내경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사결과와 포인트

- 『건설』은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어, 과거최고치를 갱신했다. 공공공사와 더불어 민간설비투자, 주택관련의 막바지 수요, 태양광발전의 설치공사, 재해방지·재해감소 공사 등,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 수요 증가가 대폭적인 개선의 요인이 되었다.
-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이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다. 「중소기업」도 6년 11개월 만의 높은 수준이 되었다. 건설과 서비스 등 소규모 기업에도 아베노믹스 효과가 파급되기 시작했다.
- 전체 10지역이 3개월 연속으로 모두 개선되었다. 『호카이도』 『토호쿠』 『큐슈』의 3지역은 2개월 연속으로 과거최고치를 갱신했다. 『호카이도』는 전체 10지역 중 1위로 처음으로 50을 넘었다. 『부동산』과 『건설』 등 4업계가 50 이상이었다.



< 향후의 전망 : 상승이 지속>

아베수상은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의 결단을 내렸다. 향후는 각 기업의 소비세율에 대응과 5조엔 규모라고까지도 들리는 정부의 경제대책, 법인세감세 등을 포함한 성장전략 등, 막바지 수요후의 반동감을 억제하는 완화조치가 경기를 지탱한다. 2013년도 상반기의 기업실적이 회복되어, 국내경기의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증세가 실적에 「악영향」이라 생각하는 기업도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되어, 실적에의 불안도 약해지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의 의식조사」(2013년 8월조사, 테이코쿠데이타뱅크)】. 게다가, 지진재해복구와 국토강인화 정책과 같은 공공투자 외에,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스플레이판 탈피를 위해 물가도 점점 인상되고 있어, 비제조업을 포함한 설비투자와 적극적인 점포전개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DI	2012년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1월	2월	3월	4월	5월
경기DI	36.8	35.5	35.3	35.7	38.0	39.8	41.3	42.4	43.0
전월대비	▲0.9	▲1.3	▲0.2	0.4	2.3	1.8	1.5	1.1	0.6
경기DI	2013년6월	7월	8월	9월	경기예측DI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경기DI	42.5	43.6	44.6	46.1	경기예측DI	46.9	47.5	47.9	49.7
전월대비	▲0.5	1.1	1.0	1.5	2013년9월 대비	0.8	1.4	1.8	3.6

*1: 색상이 없는 부분은 개선, 황색은 보합, 청색은 악화를 나타냄

*2: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전체 10업계가 개선, 51 업종중 5업종에서 과거최고치 갱신

- 『금융』 『건설』 『제조』 『도매』 『운수·창고』 『서비스』 가 3 개월 연속, 『농·임·수산』 『부동산』 『소매』 가 2 개월 만에 개선되는 등, 2013 년 1 월이래 8 개월 만에 전체 10 업계가 개선되어, 51 업종 중 5 업종이 과거최고치를 갱신했다.
- 『건설』 (53.8)… 전월대비 3.1 포인트 증가. 3 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어, 전월에 이어 과거최고치를 갱신했다. 전체 10 지역이 개선되고, 전체 10 업계에서 최대의 개선폭이었다. 공공공사와 함께 민간 설비투자가 개선되어, 소비세율 인상전망과 주택자금 대출의 시세 상승감을 받은 주택관련의 막바지 수요, 큐슈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의 설치공사, 칸토 지역에서 2020 년 도쿄 올림픽에의 기대감, 터널과 교량, 학교 등의 재해방지·재해감소 공사 등,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부터의 수요증가가 대폭적인 개선요인이 되었다.
- 『제조』 (43.9)… 동 1.4 포인트 증가. 3 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자동차의 신차투입과 막바지 수요, 고용환경의 개선이 보여지는 미국과 제조업의 생산이 견조한 중국 등의 경기저점 등으로 국내외를 향한 생산이 확대된 「운송용기계 · 기구제조」 (51.4, 동 1.5 포인트 증가)와, 주택착공의 증가로 기와와 주택설비기기, 산업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등이 호조인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49.9, 동 0.3 포인트 증가), 조선과 철공, 자동차, 주택 등의 확대를 배경으로 한 절삭공구의 생산확대와 반도체·칩마운터의 수출증가 등을 받은 「기계제조」 (46.0, 동 2.0 포인트 증가)등, 전체 12 업종이 개선되었다.
- 『소매』 (42.4)… 동 1.3 포인트 증가. 2 개월 만에 개선. LED 기기의 가격인하로 판매가 호조였던 「가전·정보기기소매」 (49.2, 동 3.1 포인트 증가)와, 폭서에 따른 여름철 용품의 매출이 호조였고 가을철 용품의 시작이 비교적 순조로웠던 「섬유·섬유제품·의복장신구 소매」 (39.9, 동 5.4 포인트 증가), 고액상품의 수요증가로 백화점등의 외부판매가 호조였던 「각종상품소매」 (46.5, 동 1.1 포인트 증가)가 4 개월 만에 개선, 맨션 등의 주택판매 확대를 받은 「가구류소매」 (51.5, 동 9.8 포인트 증가)등, 9 업종 중 7 업종이 개선되었다.
- 『운수·창고』 (46.4)… 동 2.7 포인트 증가. 3 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2007 년 4 월(47.3)이래, 6 년 5 개월만의 높은 수준이 되었다. 부흥수요와 국토강인화 공사로 토목·건설관계가 호조, 또한 통관물류 등이 상승경향에 있어, 실차율이 개선되었다. 또한, 외항화물운수업에서는 엔저가 정착되어 와서, 대형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회복되고 있다.

		12년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352	333	337	349	360	368	357	354	397	395	410	378	401	23	
금융		375	357	361	362	413	424	419	447	444	440	446	450	456	06	
건설		381	386	390	387	419	438	453	464	476	475	494	507	538	31	
부동산		383	367	357	370	409	457	468	488	492	477	493	484	499	15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347	334	327	334	345	356	368	387	381	387	393	390	404	14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60	337	331	356	369	373	381	399	378	378	402	399	403	04	
	건재·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379	364	370	382	389	403	427	434	453	465	474	496	499	03	
	철·철기·철기제품제조	327	302	308	311	333	330	360	370	382	349	360	373	386	13	
	출판·인쇄	286	291	292	283	296	314	328	328	331	319	321	317	338	21	
	화학제품	364	350	333	341	364	380	399	410	426	421	424	439	450	11	
	철강·비철금속·광업	356	321	319	326	355	376	385	397	400	398	423	441	462	21	
	기계제조	364	340	334	327	363	392	398	400	410	408	428	440	460	20	
	전기·전자제조	348	326	318	328	358	382	384	401	419	402	423	433	437	04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05	333	328	326	342	412	456	470	465	476	480	499	514	15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362	335	325	324	336	365	367	396	393	387	393	408	429	21	
	기타 제조	322	292	308	310	313	348	354	356	333	337	359	351	367	16	
전체		354	331	326	331	353	374	386	397	403	400	414	425	439	14	
도매	식품료품도매	341	324	335	339	346	353	371	380	394	386	397	397	410	13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18	320	324	343	347	346	345	375	364	363	366	365	378	13	
	건재·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73	383	393	399	422	435	445	463	461	468	477	492	503	11	
	출판·인쇄·서적도매	328	280	302	317	318	323	343	363	365	353	352	349	372	23	
	화학제품도매	367	356	351	346	359	361	385	397	414	402	410	419	432	13	
	철강·비철금속·광업도매	270	224	301	321	419	488	506	506	466	431	465	444	494	50	
	기계·기구도매	369	346	337	341	368	388	410	421	419	404	423	434	444	10	
	기타 도매	341	328	328	322	340	353	371	381	393	388	389	394	407	13	
	전체		353	339	339	345	365	377	395	405	409	401	414	422	435	13
	소매	식품료품소매	367	331	347	306	329	388	405	405	410	382	400	399	391	▲ 0.8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22	329	355	329	346	348	414	407	386	392	386	345	399	54	
의약품·의료장비·의료소매		438	423	444	477	494	457	449	447	507	440	467	458	467	09	
가구류소매		361	321	347	389	375	444	462	500	500	488	574	417	515	98	
가전·정보기기소매		404	338	333	341	395	387	417	441	421	475	441	461	492	31	
자동차·동·부품소매		415	369	315	321	412	429	494	434	472	438	450	478	477	▲ 0.1	
전문상품소매		330	324	327	330	327	351	370	369	372	370	370	374	376	02	
악용품소매		363	358	353	355	384	405	428	455	469	462	457	454	465	11	
기타 소매		361	333	333	367	367	310	333	405	357	389	375	333	417	84	
전체		364	342	342	340	363	384	412	411	419	409	411	411	424	13	
운수·창고		376	367	353	369	380	395	406	415	426	417	429	437	464	27	
서비스	물류점	396	360	324	354	357	378	435	438	480	475	452	456	443	▲ 1.3	
	전기통신	500	452	487	487	538	530	550	564	550	545	517	556	517	▲ 3.9	
	전기·가스·수도·열공급	417	370	426	375	438	458	405	481	481	517	481	481	458	▲ 2.3	
	리스·임대	438	433	437	452	453	484	499	496	507	507	512	516	535	19	
	료칸·호텔	417	381	400	372	384	401	458	482	491	483	514	508	509	01	
	오락서비스	350	374	362	367	385	385	406	410	385	405	367	386	395	09	
	방송	412	382	406	385	417	378	438	435	490	440	451	454	491	37	
	연대연선·경비·감사	397	377	384	376	407	440	433	433	448	437	435	450	457	07	
	광고관리	359	351	347	345	354	389	408	425	424	426	423	425	419	▲ 0.6	
	정보서비스	425	422	428	422	452	473	477	495	493	487	494	506	513	07	
	연계매관·소개	488	466	428	449	447	487	503	503	506	522	526	545	557	12	
	전문서비스	411	405	404	411	443	469	473	487	508	477	504	528	535	07	
	의료·복지·보건위생	434	418	411	408	453	457	480	490	488	473	457	469	450	▲ 1.9	
금융서비스	393	423	401	383	468	468	453	480	470	467	464	471	420	▲ 5.1		
기타 서비스	429	411	407	395	422	421	447	447	462	462	470	479	496	17		
전체		415	406	405	405	430	450	462	473	479	472	476	488	493	05	
기타		387	374	360	362	367	338	357	423	415	414	389	401	428	27	
격차 (10개업계별 『기타』 제외)		63	75	79	74	77	89	111	134	95	82	84	129	137	↗	
중국진출		374	357	350	355	375	392	403	423	435	428	441	453	464	1.1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이 과거최고치를 갱신

- 「대기업」(49.6, 전월대비 1.4 포인트 증가), 「중소기업」(45.0, 동 1.5 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45.1, 동 2.0 포인트 증가) 다같이 3 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은 2002 년 5 월의 조사개시 이래 최고치를 갱신, 「중소기업」은 2006 년 10 월(45.7) 이래 6 년 11 개월 만의 높은 수준이 되었다. 또한, 「소규모기업」이 「중소기업」을 상회한 것도 조사개시 이래 처음이었다. 아베노믹스 효과가 중소기업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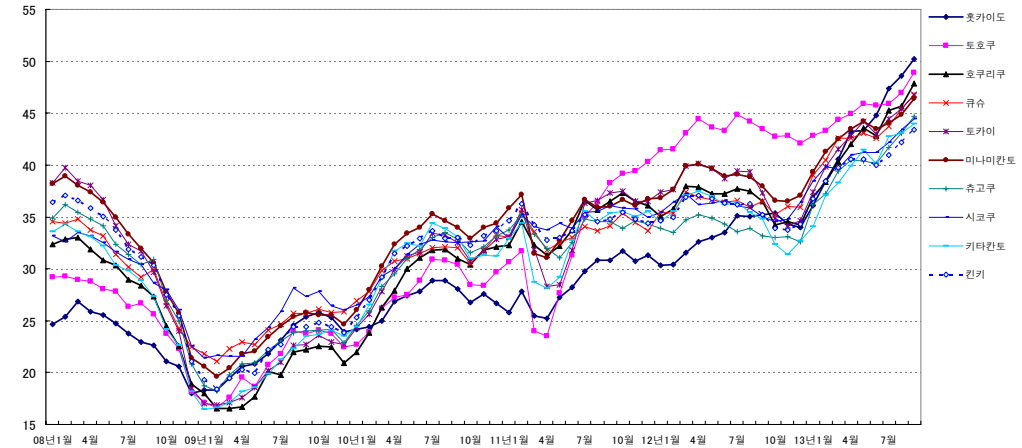
	12년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대기업	39.5	38.2	38.4	38.7	41.0	42.9	44.2	45.3	46.4	45.9	47.0	48.2	49.6	1.4
중소기업	36.0	34.6	34.4	34.7	37.1	38.9	40.4	41.5	42.0	41.4	42.6	43.5	45.0	1.5
(그 중 소규모기업)	35.0	34.0	33.6	33.9	36.9	38.9	40.1	41.2	41.6	41.1	42.2	43.1	45.1	2.0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5	3.6	4.0	4.0	3.9	4.0	3.8	3.8	4.4	4.5	4.4	4.7	4.6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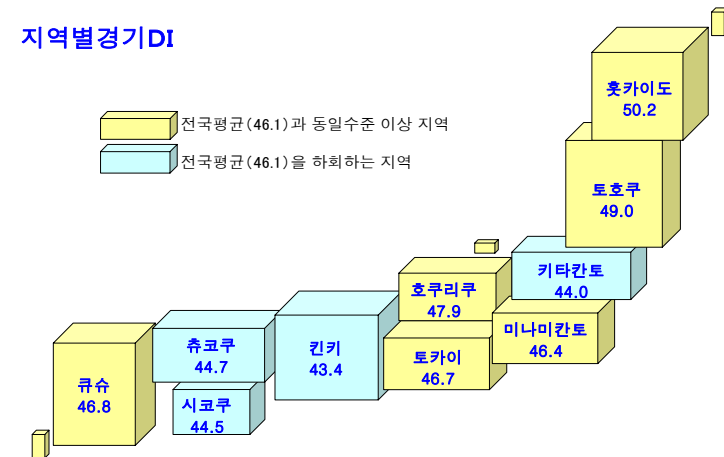
지역별 : 3개월 연속 전체 10 지역 개선, 3 지역이 2개월 연속 과거최고치 갱신

- 「홋카이도」(50.2)… 전월대비 1.6 포인트 증가. 9 개월 연속으로 개선되며, 3 개월 연속으로 10 지역 중 1 위가 되어, 과거최고치를 갱신했다. 50 을 넘은 것은 2006 년 10 월의 『토카이』(50.5)이래 6 년 11 개월만으로, 『홋카이도』에서는 처음. 맨션판매의 호조가 계속된 『부동산』(58.3, 동 3.1 포인트 증가)이 2 개월 만에 개선되었고, 공공사업이 증가해 단가도 상승하고 있는 『건설』(58.3, 동 2.6 포인트 증가), 건설기계 임대와 컴퓨터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49.6, 동 2.1 포인트 증가) 등, 10 업계 중 4 업계에서 50 이상이었다.
- 「토호쿠」(49.0)… 동 2.1 포인트 증가. 3 개월 연속 개선되어, 과거최고치를 갱신했다. 고속버스 제도의 재검토에 따른 승합버스의 고객증가와 지진재해복구로 화물운송이 호조인 『운수·창고』(44.6, 동 2.6 포인트 증가)가 과거최고치였고, 부흥수요와 더불어 민간의 설비투자 의욕이 개선된 영향을 받은 『건설』(61.6, 동 3.4 포인트 증가)이 처음으로 60 을 상회하는 등, 10 업계 중 7 업계가 개선되었다.
- 「호쿠리쿠」(47.9)… 동 2.2 포인트 증가. 3 개월 연속 개선으로, 10 지역 중에 최대 개선폭이었다. 2005 년 10 월(48.2)이래 높은 수준. 소비세율 인상전의 막바지 수요와 새로운 조성지 개척 등에 주택구입 의욕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59.2, 동 3.3 포인트 증가), 자동차와 산업기계가 호조로 해당업계의 하청이 많은 『제조』(46.8, 동 2.8 포인트 증가) 등, 비교가능한 9 업계 중 5 업계가 개선되었다. 행정구역별로는 「이시카와」(54.6, 동 4.6 포인트 증가)가 전국에서 2 위, 「토야마」(49.3, 동 0.4 포인트 감소)가 6 위가 되어, 4 현 중 2 현이 상위 10 위 이내에 들었다.

지역별그래프(2008 년 1 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경기DI



	12년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35.2	35.3	34.3	34.0	36.1	38.4	40.5	43.2	43.3	44.8	47.4	48.6	50.2	1.6
토호쿠	43.5	42.7	42.8	42.1	42.8	43.3	44.3	44.9	45.9	45.8	45.9	46.9	49.0	2.1
키타칸토	34.8	32.4	31.4	32.7	34.1	37.1	38.3	39.9	41.4	40.1	42.8	43.0	44.0	1.0
미나미칸토	37.9	36.6	36.5	37.1	39.4	41.3	42.5	43.5	44.2	43.5	44.1	44.8	46.4	1.6
호쿠리쿠	36.5	34.2	34.6	34.2	36.9	38.4	40.3	42.0	43.5	42.8	45.2	45.7	47.9	2.2
토카이	37.3	34.9	34.2	34.6	37.4	39.8	41.5	42.8	44.2	43.0	44.4	45.4	46.7	1.3
킨키	35.2	33.9	33.8	34.3	36.7	38.5	39.7	40.6	40.5	40.0	40.9	42.2	43.4	1.2
츄고쿠	33.1	33.0	33.1	32.6	36.2	37.2	39.4	40.4	40.4	40.2	41.7	43.1	44.7	1.6
시코쿠	35.1	34.6	34.8	36.4	38.4	39.8	39.7	41.0	41.2	41.2	42.2	43.4	44.5	1.1
큐슈	36.5	35.2	36.0	36.0	39.0	40.5	42.6	42.6	43.0	42.5	43.7	45.4	46.8	1.4
격차	10.4	10.3	11.4	9.5	8.7	6.2	6.0	5.0	5.5	5.8	6.5	6.4	6.8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또는 감소를 나타냄.